

주요개념 : 노인의 의미

노인의 의미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유형 연구 - Q 방법론 적용 -

박 인 숙* · 이 금 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의학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점차 연장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0년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구성 비율이 전체 인구의 4.8%인 240만 명이었으며 1999년에는 6.7%이고 2000년대에는 7.1%,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3.2%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김정석, 1999; 이선자, 허 정, 1985).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감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노인 인구의 문제는 간호학뿐만 아니라 의학, 사회과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노인의 건강과 복지 문제에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신재신, 1985).

우리 나라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연장자로서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이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은 젊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노인의 역할 감소와 상실, 사회활동에서의 은퇴, 그에 따른 경제 활동 감소와 수입 감소 및 심리적 고독, 사회적 고립과 소외 등은 가족과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를 크게 약화 시켰으며 노령으로 인한 신체적 약화, 좌절, 무가치감을 느끼게 되어 노인들

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 산업사회로 인한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이외에 또 하나의 원인은 가족제도의 변화이다.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되고 부부 중심인 핵가족이 형성되어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가치관이 점차 희박해짐으로써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간에 가치관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 노인 세대는 자신이 지켜온 전통적인 가치관을 전수시키려고 하나 젊은 세대는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중요시하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여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갈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윤성혜, 1990)

Crockett 등은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Crockett, et al., 1979; 조춘국, 1987) 서병숙(1986)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높다고 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인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가족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노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청소년들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노인에 대한 의미의 태도 유형을 확인하여 봄으로써 노인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과의 갈등을 줄이며 더 나아가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시의 간호사정단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경원대학교 간호학과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며, 태도 유형을 파악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 부양시의 간호 사정단계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II. 문헌 고찰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자관계 특히 부자관계이며, 이 부자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규범이 "孝"이다. 이러한 효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유영주(1978)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는 도시나 농촌에서 종래의 "孝"의식과는 차이가 있으나 아직도 전통적인 영역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 전통가족 내에 있어서 노인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노인을 자녀(특히 장남)가 부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의 절대적 권위도 산업화, 서구화, 합리화의 물결에 의해 서서히 도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노인부양 당위성마저 흔들리게 되었다(김태현, 1984).

그러나 노인부양에 대한 서구화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녀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므로 해서 노인과 자녀의 동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가를 지지하는 사람 보다 약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원석조, 1984).

정현희, 유영주(1978)는 우리나라의 핵가족 현상은 서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핵가족은 증가하나 가치관에 있어서는 가족주의를 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주의적이며 현실 지향적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의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제도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보이나, 한국의 부모와의 동거의식의 강도와 부모와의 동거 이유로서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보살피는 것이 좋다'와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일본의 가족관계와는 조금 다른, 전통적 가족제의 가족관계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홍상욱, 1991).

그러나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는 가족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서 가족 내 구성원들간에도 많은 갈등을 야기시켰다(정정숙, 1981).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가족 내에서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Conner & Walsh(1980)은 심리학을 전공하는 남녀 대학생 185명과 Full-time직업을 가지고 있던 25-64세에 있는 남녀 129명을 대상으로 노인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25-64세에 있는 남자가 대학생들 보다 노인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조명희(1974)는 Tuckman & Lorge(1958)의 질문 문항을 우리 나라에 맞게 수정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10개 영역 중 보수적 경향, 관심과 취미생활, 불안감, 신체적 문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태도 및 경제적인 문제 등의 6개 영역에서 50%이상의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며 정신기능의 쇠퇴, 가족관계, 인성 및 간섭 등의 영역에서 50%이하의 부정적 반응율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는 이 연구 논문에서 고등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지역별, 성별, 노인과 경험유무, 종교보다는 어렸을 때의 가정 교육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차용은(1980)은 Tuckman & Lorge(1958)의 질문 문항을 사용하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노인과 접촉경험이 많은 학생이, 가정 교육이 더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태현(1982)의 연구 결과에서는,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노인이 노인 단독이나, 노인 부부만 동거, 출가한 딸과의 동거, 미혼자녀 및 손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속하는 노인보다 정서적 부양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동거여부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한 송효석(1988)의 연구결과, 동거 노인들은 자녀의 부양 중에서 서비스 부양에 대한 만족이 제일 높고, 정서적 부양, 경제적 부양의 순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별거 노인들은 자녀의 정서적 부양에 대해서 가장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서병숙(1986) 또한 기혼자녀와 동거시 정서적 만족도가 가장 낮고, 노인 단독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동거시 정서적으로 문제점이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춘국(1987)은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핵가족을 선호하고, 長壽에 대해서도 별 할 일이 없으면 일찍 죽는 편

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으며(남학생 58.2%, 여학생 74.4%), 부모 봉양 여부에서는 남학생 69.8%, 여학생 38.8% 만이 모시겠다고 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이 결과와는 상반되게, 서병숙(1986)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임인혜(1987)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인 부양의식 연구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보여 고등학생이 대학생 보다 노인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한 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 부양의식 연구에서 고학년이 필수로 부양 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나(허 훈, 1988) 연령 변수에 따른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성별과 출생 순위별 차이를 보여 여학생일수록, 출생 순위가 첫째일수록 부양의식이 높다고 보고되어(서병숙, 1986; 임인혜, 1987) 젊은이의 부양의식은 연령, 성별, 출생순위 등이 영향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윤성혜(1990)는 노인의 가족관계 영역에 대해 노부모와의 동거가 만족스러울수록, 노부모 부양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집단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인의 신체적 영역에 대해서는 변인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 대해서는 노부모와의 동거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청년집단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은주(1993)는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 우선성 부계 가문의 영속화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족 우선성, 형제 자매 친척간 사회 경제 유대의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며느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가족주의 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중 부모 공경 의식은 각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 공경의식이 개인적 사회 인구학적 변인보다는 다른 제반 사회 현상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정혜(199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효 의식이 아주 높게 나타나(M=4.44) 현재 대학생들도 효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함을 알 수 있으며, 농어촌과 도시 지역이 차이가 없이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도 높게 나타나서(M=4.09)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의미의 태도 유형을 분석해 보고자 Q -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 -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특성 이해가 가능하고 "외부로부터 설명"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 하는 접근 방법으로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김홍규, 1992). 연구기간은 1998년 1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시행하였다.

1. Q - 표본의 표집 방법

Q - 모집단은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구하며 Q - 모집단의 구성을 위한 조사 대상자는 그 주제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거나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김홍규, 1992).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치료 및 간호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 외 노인들과 연령별로 50대, 40대, 30대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립적이고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진술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반복해서 들으면서 문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으며 123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그 외 노인과 관련된 전문서적이거나 문헌연구,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 등을 통해 추출한 60개의 진술문을 합쳐 총 183개의 Q -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Q - 표본의 선정은 비구조화 된 방법을 통하여 준비된 Q - 모집단을 놓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에서 긍정적인 진술문과 부정적인 진술문이 고루 섞이도록 분류하였으며 분류결과 40개의 진술문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이 끝난 뒤 간호학 교수와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 재조정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표본을 선정한 후 문예 창작학과 교수에게 의뢰하여 국어학적인 수정을 거쳐서 Q 카드를 만들었다(표 1).

2. P - 표본의 표집 방법

Q - 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보다는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기 때문에 P - 표본의 수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김홍규, 199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인 고등학교 1, 2, 3학년 남·녀(15 ~ 18세) 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청소년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 각 유형에 대한 진술항목 별 표준점수

Q - 진술문 내용	유형별 Z 값 (Typal array Z's)		
	제 1 유형 (20명)	제 2 유형 (4명)	제 3 유형 (6명)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1.5	1.5
노년은 어느 누구도 피할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6	1.6	1.0
내가 죽은 후의 자식문제가 걱정이다.	-.4	-.8	.0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1.2	1.4	-1.2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이다.	-2.0	-.1	-2.3
노인이 되면 노망이 날까 봐 걱정된다.	.1	1.2	1.0
노인이 되면 가난해진다.	-1.2	-1.4	-.6
노인이 된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1.7	.1	-1.0
노인이 되면 지루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게 된다.	-.6	.0	1.1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1.0	-.6	1.7
노인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8	-.1	-.1
노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1.1	.1	1.5
노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어야한다.	.8	-.8	.1
노인은 배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7	1.0	-1.2
노인이 되면 사회와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추방된다.	-1.2	-1.5	-1.4
노인이 되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된다.	-.1	.8	.3
노인이 되면 자유롭고 흥분해져서, 여유가 생긴다.	1.2	-.2	-1.5
노인이 되면 죽은 후에 편안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게 된다.	.6	-.1	.2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2.0	.4	-.3
노인이 되면 성격이 따뜻하고 편안해진다.	.2	-1.5	.3
노인이 되면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4	1.1	-.9
노인이 되면 희망보다는 추억의 힘으로 살게 된다.	.9	.3	.6
노인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	.2	.8	1.2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진다.	.1	-2.1	-.7
노인이 되면 힘이 없어지고 성욕도 없어진다.	-.6	-.2	.2
노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	-.5	.1	-.4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고 선해진다.	.2	-1.9	.1
노인이 되면 외모가 추해지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다.	-1.1	.2	-.7
노인이 되면 더 지혜로워진다.	.7	-1.0	-.4
노인이 되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9	-1.1	-.3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1.8	.9	-.4
노인이 되면 신에게 더 매달리게 된다.	.0	-.8	-.4
노인이 되면 불안감이 생긴다.	-.4	1.3	.7
노년은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다.	1.6	-.5	-.4
노인이 되면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러워진다.	-.0	1.5	.2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1.2	.4	1.9

3. Q - 표본 분류과정 및 방법

Q - 표본 분류과정의 절차는 Q - 표본을 먼저 읽은 후 긍정, 중립, 부정으로 크게 세 무더기로 나눈 후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케 하였고, 부정진술문에서도 가장 부정하는 것을 골라 바깥에서부터(-4) 안

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Q - 표본 분류과정이 끝난 직후에는 양극에 위치한 적극찬성과 적극반대에 분류한 진술문 하나 하나에 대한 선택 이유를 면담을 통해 조사하여 응답내용을 여백의 종이에 기록해 두었다. 그밖에도 P - 표본들에 관련된 인구학적 속성 중 연령, 성별, 노인과의 동거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 - 표본으로 표집된 청소년 30명에 대한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에 자료화일로 입력시킨 후 코딩은 배열카드에 기록된 진술항목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반대하는 경우에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 5점, 가장 찬성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한편 자료의 분석은 PC의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 - 요인 분석은 주인자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노인의 의미에 대한 주관성 구조

노인의 의미를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한 결과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요인의 수는 3개 요인으로, 이 3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59.14%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제 1 요인이 41.37%, 제 2 요인이 11.49%, 제 3 요인이 6.28%이었다<표 2>.

<표 2> 청소년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 요인별 Eigen Value와 변량

요 인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Eigen Values	12.4116	3.4466	1.8836
Variance	.4137	.1149	.0628
Cumulative	.4137	.5286	.5914

이와 같이 요인의 수를 3개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으며, 이들 3개의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제 1 유형과 제 3 유형의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3> 청소년이 인지한 노인의 의미 유형간의 상관관계

	유 형 1	유 형 2	유 형 3
유 형 1	1.000	.104	.455
유 형 2	.104	1.000	.254
유 형 3	.455	.254	1.000

연구 대상자의 유형별 특성은 <표 4>와 같으며, 제 1 유형이 20명, 제 2 유형이 4명, 제 3 유형이 6명이었다. 각 유형간의 인자가중치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그 속한 유형에서 전형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그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의미에 대한 각 유형의 결과 해석은 각 유형에

<표 4> 청소년 P-표본의 유형별 인자 가중치(Factor weight)

TYPE 1 (N=20)		TYPE 2 (N=4)		TYPE 3 (N=6)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번호
1 남18세	1.0205	2 남18세	2.2602	3 남18세	1.9959
4 남17세	1.2398	16 여16세	.9790	9 남17세	.9539
5 남17세	.6492	28 여18세	1.2350	21 남18세	.5312
6 남17세	1.3162	30 여17세	.7915	23 남19세	1.1076
7 남18세	1.2891			27 남17세	.4618
8 남17세	3.0555			29 여17세	1.2329
10 남17세	1.2616				
11 여18세	2.4829				
12 여17세	2.8902				
13 여17세	2.2677				
14 여18세	1.3974				
15 여15세	1.0847				
17 여15세	3.2081				
18 여15세	1.3987				
19 여15세	2.3512				
20 남19세	1.2514				
22 남18세	.8442				
24 남20세	1.6575				
25 남20세	2.0750				
26 남17세	.8785				

대한 36개의 진술문 중 긍정을 보이는 항목(표준 점수 >+1)과 부정을 보이는 항목(표준점수<-1)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 개별 진술 항목에 대한 특정유형의 표준점수와 함께 개별 진술 항목에 대한 다른 유형과의 차이점수가 두드러진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표 1).

일반적으로 인자가중치가 1.00이상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며 그 유형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도 각 유형의 대표성을 가진 청소년을 중심으로 Q - 분류과정 당시 관찰 및 긍정과 부정의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면담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적 구조유형을 설명하고 해석하였다.

1) 제 1 유형 : 노인 존경형

제 1 유형에서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노년은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다.'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등이었으며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노인은 쓸모 없는 존재이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등이었다(표 5).

다른 유형과의 비교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항목은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노년은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다.' '노인이 되면 자유롭고 흥분해져서 여유가 생긴다.' 로 제 2 유형과 제 3 유형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제 1 유형에서만 긍정이 강했다. 그 외에도 '노인은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노인이 되면 더 지혜로워진다.'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진다.' 는 제 1 유형에서만 긍정으로 나타

났고 '노인이 되면 지루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게 된다.' '노인이 되면 불안감이 생긴다.' '노인이 되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된다.' 는 제 1 유형에서만 부정으로 나타났다.

제 1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노인이 된다는 것을 인생의 완성과 보람과 발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건강이나 경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베풀어야 되고, 따뜻해지고 지혜로워지며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노인 존경형'으로 명명했다.

제 1 유형에는 남자 12명, 여자 8명으로 30명의 대상자 중 20명이 속했고 가장 대표적인 17번 대상자는 현재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나 8번, 12번, 19번 대상자 등은 1달에 1번 정도 또는 명절 때 등 1년에 3 - 4회 접촉으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 기관에 있는 25번 대상자는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과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제 2 유형 : 노인 거부형

제 2 유형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진술문은 '노년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노인이 되면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러워진다.' 등이었으며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하는 진술문은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진다.'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고 선해진다.' '노인이 되면 성격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진다.' 등이었다(표 6).

다른 유형과의 비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노년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표 5> 제 1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Q - 진술문 내용	표준 점수
노년은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다.	1.60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1.47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1.25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1.22
노인이 되면 자유롭고 흥분해져서, 여유가 생긴다.	1.16
노인이 되면 사회와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추방된다.	-1.24
노인이 된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1.68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1.77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이다.	-2.00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2.04

〈표 6〉 제 2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Q - 진술문 내용	표준점수
노년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1.57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1.53
노인이 되면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러워진다.	1.47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1.40
노인이 되면 불안감이 생긴다.	1.28
노인이 되면 가난해진다.	-1.38
노인이 되면 사회와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추방된다.	-1.50
노인이 되면 성격이 따뜻하고 편안해진다.	-1.55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고 선행한다.	-1.87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진다.	-2.10

와 '노인이 되면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러워진다.' '노인이 되면 불안감이 생긴다.' 에서 가장 긍정이 강했고 '노인이 되면 외모가 추해지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중 최악의 것이다.' '노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라는 항목은 제 2 유형에서만 긍정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진다.'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고 선행한다.' '노인이 되면 성격이 따뜻하고 편안해진다.' '노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에서는 제 1 유형과 제 3 유형과는 달리 제 2 유형에서만 부정으로 나타났다.

제 2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노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노인이 되면 추해지니까 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이 되면 약해지고 힘이 없으므로 자식에게 더 의지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도 자식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나타났으며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면 구차할 거라고 생각되어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2 유형에서는 남자 1명 여자 3명으로 4명이 속했다. 제 2 유형을 대표하는 21번, 28번 대상자들은 노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감이 있으며 노인이 되면 관대해진다거나 따뜻해지는 것, 욕심에서 벗어나 초연해지는 것 등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노인 거부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 3 유형 : 노인 돌봄형

제 3 유형에서는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노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등에 강한 긍정을 보였고 '노인은 쓸모 없는 존재다.' '노인이 되면 자유롭고 흥분해져서 여유

〈표 7〉 제 3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Q - 진술문 내용	표준점수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8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1.94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1.74
노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1.53
노인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	1.23
노인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1.17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1.18
노인이 되면 사회와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추방된다.	-1.43
노인이 되면 자유롭고 흥분해져서, 여유가 생긴다.	-1.49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이다.	-2.31

가 생긴다.' '노인이 되면 사회와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추방된다.' 에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였다(표 7).

제 3 유형에서 다른 유형과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라는 항목으로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에 비해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노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노인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 에서도 차이가 났다.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와 '노인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에서는 제 3 유형에서만 부정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 3 유형에는 남자 5명, 여자 1명으로 모두 6명이었다. 제 3 유형을 대표하는 3번 대상자는 1주일에 1번씩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있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자식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자립도 어려운 것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노인들이 더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더 잘 보살펴주어야 되고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서 '노인 돌봄형'으로 명명하였다.

V. 논 의

노화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이면서 개인적인 현상이다. 김순이(199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신체적 모습의 변화로 자신이 노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생활 세계에서는 자신이 중심에서 벗어나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인해 무능함, 허전함, 소외감을 느끼면서 현 상황에 조화를 이루려고 애쓴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자신의 노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상실됨을 느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회한과 남아 있는 삶을 위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참고 인내하면서 반성적인 자의식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여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삶의 애착심도 나타나고 창조적인 자기 확장 의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노인의 부양과 간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먼저

청소년들은 노인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노인의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가정 노인과 양로원 노인을 비교한 박인숙(1989), 오경옥(1991) 등의 연구에서도 가정노인이 양로원노인보다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우울정도는 낮았다는 결과도 나타나 가족이 부양하는 것이 노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노인의 의미는 제 1 유형으로 대상자 30명중 20명이 속했다. 제 1 유형은 '노년은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다.'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라는 항목의 점수가 높아 '노인 존경형'으로 명명하였다.

제 1 유형에서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노년은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라고 하였는데 제 1 유형의 청소년들은 노인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이고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오래 산 사람은 경험이 풍부하고 살아오면서 경험에서 얻은 산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사회에 환원해서 존경도 받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서 노인은 공경하고 존경받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는 항목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것은 노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힘도 약해지고 질병도 많이 생기는데 평균수명은 길어졌으므로 만성질환으로 본인이나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으려면 노인일수록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팽배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또한 최근에 치매,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것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사료된다.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에서도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가계 영속의 욕구가 강하며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손에게 거는 기대도 크고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욕구도 강하므로 부모들의 이런 모습에서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까이에서 접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에서는 그리

나 노인이라고 해서 자식에게 의지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예전에는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늙어서는 또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세대와는 달리 요즘은 늙어서도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자립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에서 차이나는 항목은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진다.' '노인은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다.'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고 선해진다.' 와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노인은 쓸모 없는 존재이다.' 라는 항목이었다.

이는 제 1 유형이 노인을 인생의 보람과 발전의 시기로 생각하여 노인은 관대해지고 선해지고 사회에 베풀어야 되는 이상형, 자아 완성형, 또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하는 노인 존경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제 2 유형은 노인을 쓸모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이기적이 되고 불안감이 생기고 노망이 날까봐 걱정되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제 1 유형과 제 3 유형에서 크게 차이나는 항목은 '노인이 되면 자유롭고 홀가분해져서, 여유가 생긴다.'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노인은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다.' '노인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항목과 '노인이 되면 지루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게 된다.'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노인이 되면 불안감이 생긴다.' '노인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 라는 항목이었다.

제 1 유형이 노인을 이상형, 자아 완성형, 존경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제 3 유형은 노인을 보호받아야 되고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그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며, 그런 맥락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항목에서 부정이 강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제 2 유형과 제 3 유형에서 크게 다른 항목은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노인은 쓸모 없는 존재이다.' '노인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라는

항목과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고 선해진다.' '노인이 되면 성격이 따뜻하고 편안해진다.'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노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등이었다. 제 2 유형에서는 노인은 쓸모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노인이 되는 것을 최악의 불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제 3 유형은 노인을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인은 관대해지고 선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차이로 고려된다.

변화, 발전하는 사회와는 달리 가족은 내적인 가치를 충족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족은 외형상, 기능상으로 변모하였다(김미현, 1987). 이것은 가족이 전통적 요구와 근대 산업화의 요구를 함께 수용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재은(1996)도 우리 나라의 가족 제도를 겉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확대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중적 구조라고 하였는데 비록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주 찾아가거나 명절 때만이라도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은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존경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엄윤상(1996), 김정식(1996)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청소년 자녀 세대는 대부분 차례나 제사 등의 제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숭배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청소년 자녀들은 민족적 자긍심이 높았으며 사회적 집단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부상조의 의식이 강했으며 가족 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만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조상숭배와 같은 전통적 관습이 긍정적으로 내재화된 청소년일수록 가정과 사회, 국가와 민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청소년 자녀에게 있어서 전통성의 올바른 사회화는 가정 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는 가계 영속성의 욕구가 강하여 결혼한 부부에게는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특히 자신의 손자, 손녀에게 특별한 사랑과 애

정을 쏟으므로 손자, 손녀의 위치인 청소년들은 자연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고 자라게 되어 노인에 대한 의미에서 따뜻함, 관대해짐, 선함 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청소년 자녀세대는 대부분 '장유유서', '부부유별', '부자유친' 등의 전통적 가족 윤리에 대하여 계속 지켜나가야 할 사회의 바람직한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통 윤리덕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들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한국의 전통적 가치의 올바른 사회화는 청소년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엄윤상, 1996).

이상의 논의와 분석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청소년들 중 대부분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노인을 인생의 완성과 보람과 발전의 시기로 보고 사회에 베풀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 자아 완성형, 또한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하는 노인 존경형, 노인 돌봄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모범을 보이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노인 공경의 가치관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청소년에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좋은 미풍양속은 계속 지속되도록 사회적인 관심을 일깨우고 늘어나는 노인문제의 가족 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 론

최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감에 따라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형태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노인 부양의 문제가 사회 문제, 간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노인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가족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이므로 이에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태도 유형을 파악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시의 간호사정 단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은 Q -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연구기간은 1998년 1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시행하였다. 노인들과 50대, 40대, 30대, 그리고 청소년들을 심층 면담하

고 또 시, 소설 등 문학 작품 속에서 183개의 Q-모집단을 구성하였으며 간호학 교수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Q카드를 만들었다. P표본은 청소년인 고등학교 1, 2, 3학년 남, 녀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3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59.14%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제 1 요인이 41.37%, 제 2 요인이 11.49%, 제 3 요인이 6.28% 이었다. 요인 수를 3개로 분석했을 때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졌다.

제 1 유형인 노인 존경형에는 30명의 대상자 중 20명이 속했으며 가장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노년은 인생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다.'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유지를 철저히 해야한다.'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이었으며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노인으로 사는 것 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노인은 쓸모 없는 존재이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였다.

제 2 유형인 노인 거부형에는 4명이 속했으며 가장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노년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 유지를 철저히 해야한다.' '노인이 되면 지나간 인생이 후회스러워 진다'이었고,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노인이 되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일에 초연해 진다.' '노인이 되면 관대해지고 선행해 진다' '노인이 되면 성격이 따뜻해지고 편안해 진다.' 이었다.

제 3 유형인 노인 돌봄형에는 6명이 속했으며 가장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노인이 될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 유지를 철저히 해야한다.' '노인은 자손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노인은 효도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이며,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노인은 쓸모 없는 존재이다.' '노인이 되면 자유롭게 출가분해 저서, 여유가 생긴다.' '노인이 되면 사회와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추방된다.' 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한국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가족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독특한 - 외형적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이루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확대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 이중적 구조와 유교적인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노인의 의미를 인생의 보람과 발전의 시기, 사회에 베풀고 환원하는 시기, 따뜻해지고 관대해지는 시기,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하는 시기로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

존경형, 노인 돌봄형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김미현 (1994). 한국 가족정책에 나타난 국가 가족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송애 (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순이 (1998). 한국 노인의 노화 체험. 성인간호학회지, 10(2), 234-244.
- 김정석 (1999). 노인복지정책. 노인생활, 3·4월호, 10-20
- 김정식 (1996). 우리 나라 농촌사회 가족관계 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실태 조사. 3사교 논문집 제 42 집, 219-231.
- 김재은 (1996). 한국 가족의 기능 변화. 한국가족-한양대학교 간호발전 연구소, 13-21.
- 김태현 (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태현 (1984). 가족문화와 노인의 역할. 노인생활.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30-34.
- 김홍규 (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 - 방법론의 이해.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6(1), July, 1-11
- 박인숙, 오경옥, 김종임 (1989). 노인의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의 관계분석 연구. 충남의대 잡지, 16(1), 245-259
- 서병숙 (1986). 부모 노후의 책임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제6호, 53-87.
- 송현애 (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 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효석 (1988). 가족의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재신 (1985). 노인의 근 관절 운동이 자가 간호 활동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엄운상 (1996).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옥, 박인숙, 김종임, 성은옥 (1991).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 잡지, 18(1), 269-277
- 원석조 (1984). 한국인의 가족관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제5집, 36-61
- 유영주 (1978).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 변화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3권, 15-29.
- 윤성혜 (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자, 허 정 (1985). 한국 노인의 보건 실태. 한국 노년학, 5, 103-113.
- 임인혜 (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정숙 (1981). 한국인의 가족관계 연구(II), 그 사회학적 고찰. 충신대학 논문집, 제1집, 17-33.
- 정현희, 유영주 (1978). 시간적 차원에서 본 가족의 가치관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3권, 31-46.
- 조명희 (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태도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춘국 (1987). 청소년들의 노인관 및 가족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용은 (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 논문집, 제9집, 242-252.
- 최정혜 (1997). 현대사회의 가족관계에서 빚어지는 전통윤리의 양상 : 도시, 농어촌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경남 문화 연구소, 제19호, 3-37.
- 한은주 (1993).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 만족도와 부양부담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 훈 (1988). 한국 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 부양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 노년학 제8호, 89-106.
- 홍상욱 (1991). 가족 관행 의식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자원문제 연구, 10, 163-177.
- Bekker, L. D., & Taylor, C. (1966). "Attitudes toward the aged in a multi-generational sample". Journal of Gerontology, 21(3), 115-125.
- Conner, C. L., & Walsh, R. P. (1980). "Attitudes toward the older job applicant : Just as competent, but more likely to fail". Journal of Gerontology, 35(6), 920-935.
- Crockett, W. H., Press, A. N., & Osterkamp, M. (1979). "The effect of deviations from stereotyped expectations upon attitudes

toward older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34(3), 131-133.

Kalish, R. A., & Johnson, A. I. (1972). "Valu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ree generations of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4, 49-63.

Tuckman, J. L., & Lorge, I. A. (1958). "The projections of personal symptom in to stereotype about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13(6), 70-79.

- Abstract -

Key concept : The meaning of aging and the elderly

Study on the Adolescent's
Attitude Patterns toward
the Meaning of Aging
and the Elderly
- Q-Methodology -

Park, In Sook* · Lee, Keum Jae**

The lengthened average span of human life by virtue of recent developments in medicine has caused the population of elders to increase.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has transformed family structure from the large family system to that of a nuclear family. Due to the shift in family structure, the problem of support for the aged has surfaced as a nursing problem as well as a social problem. With regard to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dolescent's understanding of elders and aging. By identifying their understanding and classifying their attitude patterns, this study will help the nursing assessment of the support of elders in the family.

This study employed Q-methodology,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998 to May, 1999. One method of the research included deep interviews with elders, those who are in their 50's, 40's or 30's, and the adolescent. 183 Q-populations taken from literary works such as poems or novels were also formed as another method. Finally, 36 Q-cards were made after consultation with professors of the nursing department. The subjects of the P- sample were 30 high schoolboys/girls - who were in first, second, and third years.

The result showed that 3 factors provided an explanation for 59.14% of the whole variables: the first factor, 41.37%; the second factor, 11.49%; and the third factor, 6.28%. These three factors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as three types.

Twenty subjects out of the 30 were included in Type 1: Respecting Elders. The statements which showed the most positive consent were as follows: "The declining age is a perfect time to prosper completing a worthy life"; "Getting old, one needs financial stability"; and "Elders wish the best for their children." The statements showing the most negative response were as follows: "It is better to die than to live as an older person"; "Elders are insignificant"; and "Getting old is the worst unhappiness that tortures human."

Four subjects were included in Type 2: Resenting Elders. The statements which showed the most positive consent were as follows: "Aging is a process of dying that nobody can escape from"; "Elders should be concerned about his health and try to maintain their health"; and "When you get older, you regret about the life in the past." The statements showing the most negative response were as follows: "When

*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College

you get older, you should stand aloof greed and worldly things"; "When you get older, you become generous and gentle"; and "When you get he gets old, you change to become a comfortable and warm person."

Six out of 30 subject were included in Type 3: Caring Elders. The statements which showed the most positive consent were as follows: "Elders should be concerned about his health and try to maintain their health"; "Elders wish the best for their children"; and "Elders deserve to be treated with filial respects." The statements showing the most negative response were as follows: "Elders are insignificant"; "Elders have freedom and plenty of free time."; and "Elders are alienated form and drove out of the society."

The above-mentioned results show that most

adolescents in Korea recognize aging as the time of fruition and development; it is a time of benefiting and giving back to society. Aging can also be seen as a time of generosity and magnanimity and the time of respect and favorable treatment from society, despite the change of modern society and the ostensible transformation of a family system. Their recognition seems deeply rooted in the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and the dual family system which is peculiar especially to the Korea - one which maintains both the superficial form of nuclear family and the substantial mode of the enlarged family system. In sum, many Korean adolescents attribute the meaning of the elderly and aging to the type of the respect with the elderly and the type of the elderly's caretaking.